

신안 안좌 존포리 갯벌 등 3km² 되살린다

해수부 향후 5년간 14곳 복원 폐염전·폐양식장 갯벌 재생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활용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신안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갯벌 14곳, 3km²를 되살리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총 23곳의 갯벌을 복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갯벌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갯벌생

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0년부터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곳, 9년간 9곳·1.08km²를 복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사업 특성상 예산확보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며 체계적인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3곳을 대상으로 갯벌 복원사업을 벌인다.

우선 2023년까지 14곳의 복원사업을 마

쳐 갯벌 3km²를 살리고, 갯벌 물길 3km를 회복시킨다.

갯벌 복원은 폐염전이나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고,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바닷물 흐름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뚫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시행착오를 줄인다.

또 복원된 갯벌을 브랜드화해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대상 사업지는 전남 신안군 안좌면 존포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충남 서산

시 대상을 옹도리, 충남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등이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을 더욱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고자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연평균 195억원에 달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회복된 갯벌을 지역 주민에게 되돌려줘 갯벌어업을 증진하고, 생태관광 등의 효과도 지역관광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모시잎 수확 일손돕기 9일 오전 광주 남구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대촌 압촌마을을 찾아 모시잎을 수확하며 다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흑산공항 운명은? ...국립공원위 20일 심의

공항 건설 비대위 "주민이 철새만 못하냐" 추진 촉구 환경단체 "청산해야 할 대상 사업" 백지화 요구

흑산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20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낙후된 국토 서남권 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을 바라는 전남 지역사회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일부 환경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흑산 공항 건설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한

다. 흑산 공항을 건설하려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심의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 대안 입지 검토 등을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심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찬반 논란은 뜨거워졌다.

공항이 건설되면 흑산도에서 서울을 가는 데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며 지역사회는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흑산도 주민의 서명운동을 비롯해 지자체·지방의회·정치권의 건의가 잇따랐다. 흑산 공항 건설 비상대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이 철새만 못하다는 이야기"라며 "철새도 중요하지만 섬 주민이 살아가는 환경도 중요한 만큼 주민 생존권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와 정의당은 지속가능한 보존

을 통한 생태관광 확대 등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청산을 요구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심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추진 배경을 지목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3000㎡ 부지에 1.2km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논 타작물 재배 침수피해도 지원금 지급

전남도·농식품부 확정 올 1만26ha 중 15% 피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 침수피해를 입은 타 작물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쁘라삐룬'으로 콩·조식료 등 논 타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현장 대책회의를 여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벼 대신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면적은 총 1만 26ha다. 이 가운데 15%인 1500여ha에서 침관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파종해 생육 중인 콩 217ha와 수단그라스를 비롯한 사료작물 1256ha 등 주로 고흥만 간척지와 영광, 해남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농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김중훈 차관보와 함께 고흥 호동리 고흥만 간척지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농가

등 20여 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피해 농업인들은 조사료의 경우 수확기 사일리지 제조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파종 확인만으로 지원해 줄 것과 논 타작물 재배 간척지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 지침' 일부를 개정해 피해 사실이 공식 인정되고 수확이 어려운 경우, 올해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파종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척지 임대료도 관련 규정 에 따라 피해율이 30~40%인 경우 45%, 80% 이상 피해 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정부가 올해 쌀 생산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대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오늘 개원...이들간 의장단 등 원구성

제11대 전남도의회가 10일 개원한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58명 의원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임시회가 10~11일 열린다. 회기에는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 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진다.

10일에는 의장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 7명을 투표로 선출한다.

의장선거에는 3선 이용재, 재선 김기태, 초선 사순문 의원이 등록했다. 부의장에는 3선 김한중·이민준, 재선 박금래 의원이 도전한다.

둘째 날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

원회,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의원들이 처음으로 등원하는 10일 오후 2시 30분에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전남지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도 열린다. 의원 선서, 의장 개원사, 지사와 교육감 축사 등이 이어진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7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2곳 불법

소방본부, 20곳 적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다중이용시설 96곳을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 20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25건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시 소방안전본부와 관할 소방서 특별단속반 6명으로 편성된 119기동단속반이 다중이용시설 9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곳에서 총 25건의 불법행위로 적발됐

다. 적발 사례는 피난방화시설 위반 9곳,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8곳, 건축 관계 법령 위반 3곳 등이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한 17곳 가운데 1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곳은 시정조치했다.

또 건축물을 임의 증축한 3곳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기관통보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스마일장비 2대 운영
- Best Skilled 닥터 선정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